

모바일융합제품 시험센터 가동

'10. 12. 22(수) 국내 휴대폰 기업의 수출용 휴대폰 및 부품·소재의 국내 사전 테스트를 위한 경북 구미의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휴대폰 등 모바일 단말기는 수출국별 통신망 환경이 상이하여 수출용 휴대폰 및 부품에 대해 현지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현재 해외 테스트비용이 1개 모델당 평균 1,923만원, 제품테스트 기간도 2달 정도 소요 중이다. '09년 국내 휴대폰 제조사 생산량의 94% 이상은 수출용 휴대폰(해외공장 포함)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융합 제품의 급진전, 4세대 이동통신시대의 도래 등에 대비하여, 국내에 해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해외 테스트 비용과 시간적 소요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는 이와 관련된 차세대 휴대폰 및 모바일 융합기술의 종합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세대 이동통신부터 4세대 이동통신까지 휴대폰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별 구축('15년 4월까지 1,033억원 투자)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으로 해외 현지 테스트비용이 1개 모델당 19백만원, 국가적으로 연간 500~1000억원 절감되고, 신제품이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 30일(기준 두달) 조기에 출시되어 모바일 중소기업의 선제적 시장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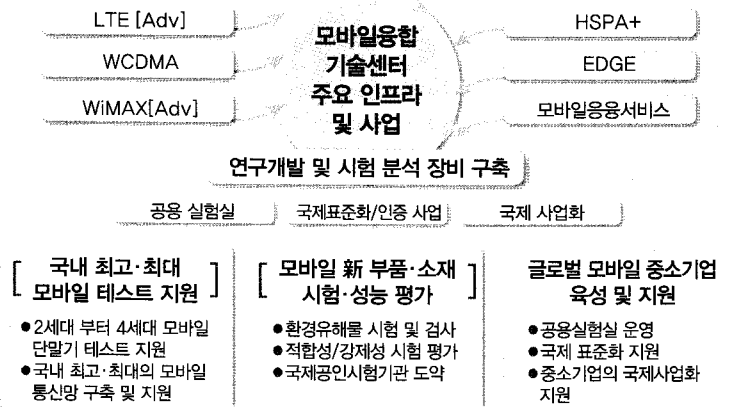
또한, 신규 일자리도 5,000개, 모바일융합기업 60여

개 창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안현호 차관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개소식 개최사를 통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모바일 빅뱅(Big Bang) 시대에서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의 전진기지 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모바일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통의 허브(Hub)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바일융합산업기술센터 구축사업의 개요를 보면, 위치는 구미시이다. 사업기간은 2010. 5. 1 ~ 2015. 4. 30(5년간)이고, 사업비는 1,033억원(국비553, 경상북도130, 구미시130, 민자220)이다. 국비예산은 ('10) 80억원 → ('11) 117억원이다. 추진주체는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구미시이며,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다. 주관기관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다. 배경과 필요성을 보면, 세계 유무선 통신시장은 2009년 1조 9,071억달러에서 연평균 3.3% 증가, 2014년 2조 2,441억달러이다.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산업은 우리나라 IT산업의 핵심이다. 세계 1위는 TV,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이며, 세계2위는 휴대폰이다. IT산업 생산 및 수출이 2009년 대비 24.2%, 27.4%(세계시장점유율 확대)이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 생산량의 93.9% 이상('09년 354.8백만대 생산, 333백만대 수출, 해외공장 포함)은 수출용 휴대폰 단말기로서, 수출용 휴대폰은 수출국별 통신망 환경이 상이하여 해당 수출국 환경에서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비전 및 사업내용

세계 모바일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 기관



테스트가 필요하다. 연간 약 1,000~ 2,000억원 해외 테스트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에 수출국 이동통신 테스트망 및 시설 구축시 해외 테스트 비용 절감, 신규 제품의 해외시장 조기 진출 (Time-To-Market) 등이 가능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모바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모바일 기반의 산업간 융합 활성화에 대비하여 테스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비중은 '09(12.7%) → '13 (20.7%) 이다.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융합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융합 기술개발, 테스트,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차세대 휴대폰 및 모바일 융합 기술의 종합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2세대부터 차세대 (4세대) 이동통신 기술 기반의 수출용 모바일 단말기, 부품 테스트망을 구축한다. 해외 사례는 핀란드 오울루파크(73), 일본 YRP(97), 중국 4G 필드테스트 (06)이다.

스마트 폰 등 다기능 고효율폰에 대한 여러 가지 모바일 핵심 칩과 소프트웨어 개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표준 및 해외이동통신사업자의 시험 및 테스트를 국내에서 사전 수행하는 것이다. 모바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바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인증 및 연동 시험 및 상용화의 One-stop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유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국제 전시회 및 컨퍼런스의 국내 개최를 통한 국제 마케팅을 지원한다. 해외 통신사업자와 국내 중소기업간 연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축계획을 보면 1차년도 2010년에는 센터 건물 리모델링 및 WCDMA, LTE 테스트망을 구축하고, 2차년도에는 국내 테스트기관간 망 연동 및 WiMAX 테스트망을 구축한다. 3차년도에는 모바일융합서비스망을 구축하고, 4차년도에는 해외 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LTE Advanced를 구축하며, 5차년도에는 IP 기반의 Pico셀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외 테스트 통신망과 연동 계획을 보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테스트망과 연동하는 것이다. 기대효과를 보면, 모바일 빅뱅시대에 모바일 중소기업의 선제적 시장 대응력을 향상할 것이다. 해외 현지 테스트 비용에서 연간 500 ~ 1,000억원 외화가 절감될 것이다. 해외 테스트 비용 절감(억원)은 (11) 300 → (12) 500 → (13) 800 → (14) 1,000이고, 新제품의 세계 모바일 시장 30일 조기 진출도 가능하다. 신규 일자리 창출 5,000개 및 신규 모바일융합기업 60개가 창출될 것이고, 대학 및 중소기업 등에 공용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